

2018년 7월 19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경기 자신감 부각에 힘입어 상승 실적 개선 발표한 금융 및 운송업종이 상승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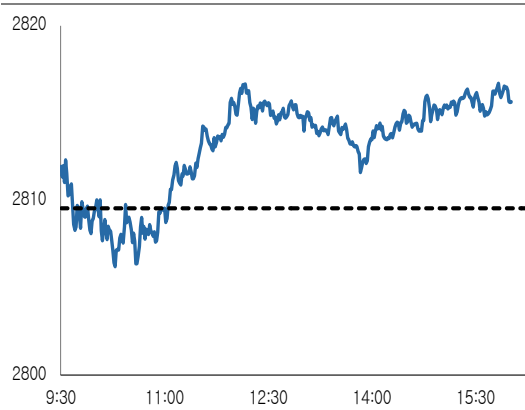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유럽증시는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 주도. 미 증시는 장 초반 무역분쟁 이슈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금융과 운송업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 및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 장 후반 기술주와 제약 바이오 업종 위주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이후 재차 반등하며 마감(다우 +0.32%, 나스닥 -0.01%, S&P500 +0.22%, 러셀 2000 +0.27%)

미 증시 변화 요인은 ①미-중 무역분쟁 ②기업실적 ③파월 의장 발언 ④ 베이지북 등. 장 초반 래리 커들러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매우 실망 했고 이로 인해 압박을 지속 할 것” 이라고 언급. 전일 므누신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따로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 주요 인사의 미-중 무역 분쟁 지속 발언. 이 여파로 한때 지수가 하락하는 등 부담. 반면, 미 증시 상승 요인은 실적 개선 및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의한 것. 모건스탠리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금융주가 동반 상승. 더불어 CSX 및 유나이티드 항공 등도 실적 개선 발표하자 운송업종도 강세를 보이며 시장 변화를 이끔.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전일 상원 청문회에 이어 하원에서 통화정책 관련 청문회가 있었음. 하원 의원들은 무역분쟁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파월 의장은 무역분쟁이 “궁극적으로 관세 인하 협상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주장, 더불어 “시작한 무역분쟁은 쉽게 끝내지 못할 것” 이라고 언급. 장 후반에는 연준이 베이지북을 발표, 시장의 관심은 무역분쟁 관련 주요 지역이자, 트럼프 당선에 큰 영향을 줬던 ‘러스트 벨트’ 지역을 관할하는 시카고, 클리블랜드 연은 등의 경기. 두 지역의 경기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부품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언급 하는 등 무역분쟁 관련 우려감을 표명. 베이지북 발표 이후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국채금리는 장기물은 상승한 반면 단기물은 하락, 달러화는 강세 지속하는 경향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90.11	-0.34	홍콩항셱	28,117.42	-0.23
KOSDAQ	810.44	-1.13	영국	7,676.28	+0.65
DOW	25,199.29	+0.32	독일	12,765.94	+0.82
NASDAQ	7,854.44	-0.01	프랑스	5,447.44	+0.46
S&P 500	2,815.68	+0.22	스페인	9,753.20	+0.35
상하이종합	2,787.26	-0.39	그리스	773.78	+1.10
일본	22,794.19	+0.43	이탈리아	21,972.22	-0.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장비 업종 강세

반도체 장비 업종 ASML(+6.64%)은 양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하반기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AMAT(+2.07%), 램리서치(+2.30%), KLA-텐코(+4.10%) 등 관련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모건스탠리(+2.91%)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다. 더불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자 JP모건(+0.93%), BOA(+0.40%), 씨티그룹(+0.72%)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버크셔-헤서웨이(+5.27%)는 주주 환원 정책 변화에 힘입어 상승 했다.

철도 운송 회사인 CSX(+7.08%)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며, 하반기 가이던스 또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유니온퍼시픽(+2.16%), NSC(+3.19%) 등도 동반 상승 했다. 한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8.79%)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델타항공(+3.25%), 아메리칸 에어라인(+2.65%) 등도 동반 상승 했다. IBM(+0.72%)는 개선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 외로 1% 넘게 상승 중이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26%	대형 가치주 ETF	+0.35%
에너지섹터 ETF	-0.35%	중형 가치주 ETF	+0.29%
소매업체 ETF	+0.34%	소형 가치주 ETF	+0.34%
금융섹터 ETF	+1.60%	배당주 ETF	-0.05%
기술섹터 ETF	-0.16%	변동성 ETF	-0.84%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7%	대형 성장주 ETF	+0.03%
인터넷업체 ETF	-0.12%	중형 성장주 ETF	+0.33%
리츠업체 ETF	-0.37%	소형 성장주 ETF	+0.22%
주택건설업체 ETF	-0.15%	신흥국 고배당 ETF	+0.21%
바이오섹터 ETF	-0.1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9%
헬스케어 ETF	+0.08%	하이일드 ETF	+0.08%
곡물 ETF	-0.29%	물가연동채 ETF	-0.16%
반도체 ETF	+1.02%	Long/short ETF	-0.9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5.47	+0.03%	-0.78%	+0.60%
소재	368.99	+0.02%	+0.74%	+0.63%
산업재	626.54	+1.13%	+2.80%	+1.73%
경기소비재	898.35	-0.08%	+1.14%	+0.93%
필수소비재	539.66	-0.65%	+0.14%	+2.79%
헬스케어	1,010.88	+0.08%	+1.26%	+2.89%
금융	463.37	+1.53%	+3.23%	+1.95%
IT	1,280.13	-0.11%	+2.12%	+1.87%
통신	148.56	-0.36%	-0.49%	+1.54%
유틸리티	264.61	-0.50%	-0.57%	+3.86%
부동산	200.38	-0.43%	-1.71%	+2.8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등 모색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0.48% MSCI 신흥 지수도 0.1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659 계약)에 힘입어 1.00pt 상승한 298.0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0.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특히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물류 운송 회사들이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다. 이들의 실적 개선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 발표는 하반기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는 하반기 한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파월 연준 의장이 “높은 물가 보다 부진한 물가 상승률이 더 문제다” 라고 주장한 점도 우호적이다. 이는 연준이 높은 물가를 용인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점진적인 금리인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 이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AMAT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 점도 국내 관련주의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미 증시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25 일) 무역분쟁 관련 협상에서 합당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EU 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여전히 무역분쟁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여파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반등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지표 둔화

미국 6 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133 만 7 천건) 이나 예상치(132 만건)에 비해 둔화된 117 만 3 천 건에 그쳤다. 건축 허가건수 또한 지난달(130 만 1 천건)이나 예상치(133 만 건) 보다 둔화된 127 만 3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0% 상승 했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9% 상승에 그치며 예상치(yoy +1.0%)를 하회 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 유가 중동 리스크 부각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가 부각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장 초반 EIA 가 지난주 원유 재고가 583 만 6 천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하기도 했다. 다만, 가솔린이 316 만 5 천 배럴이 감소 하는 등 소비 증가 기대감이 높아져 하락은 제한 되었다. 한편,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 아람코의 유전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달러지수는 주택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발표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EU 와의 무역협상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한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멕시코 폐소화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였으며, 역외 위안화 환율 또한 달러 대비 .37% 약세를 보였다.

국제금리는 주택 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 하기도 했으나, 파월 의장의 청문회와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장기물이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다만, 단기물은 파월 의장이 “높은 물가 보다는 낮은 물가 상승률이 더 위험하다” 라며 높은 물가를 용인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여파로 하락 했다.

금은 달러 강세폭이 축소되자 소폭 상승 마감 했다. 구리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여타 비철금속도 동반 상승 했는데, 최근 하락폭이 컸던 아연의 상승폭이 컸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9%, 철근도 1.2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8.76	+1.00	-2.30	Dollar Index	95.110	+0.13	+0.41
브렌트유	72.90	+1.03	-0.68	EUR/USD	1.164	-0.18	-0.29
금	1,227.90	+0.05	-1.33	USD/JPY	112.86	-0.02	+0.76
은	15,574	-0.28	-1.54	GBP/USD	1,3072	-0.33	-1.01
알루미늄	2,027.00	-0.25	-1.60	USD/CHF	0.9992	-0.09	+0.33
전기동	6,150.00	-0.03	+0.08	AUD/USD	0.7399	+0.14	+0.45
아연	2,600.00	+3.50	+1.44	USD/CAD	1.3172	-0.14	-0.28
옥수수	361.00	+0.35	+2.19	USD/BRL	3,8421	+0.09	-0.87
밀	494.50	-0.65	+4.82	USD/CNH	6,7485	+0.39	+0.37
대두	857.75	+0.29	+1.12	USD/KRW	1132.30	+0.73	+1.10
커피	108.15	-1.01	-3.48	USD/KRW NDF 1M	1130.50	+0.37	+0.2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75	+1.47	+2.56	스페인	1.276	+2.90	-2.40
한국	2.530	-2.00	+2.30	포르투갈	1.749	+1.90	-1.50
일본	0.045	+0.20	+0.20	그리스	3.838	+1.00	-1.50
독일	0.342	-0.40	-2.50	이탈리아	2.502	+3.70	-18.30